

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08년 6월 7일(토)

제목 : [보도자료]전의경 안전 외면한 비인도적 진압명령 규탄한다

문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전의경 안전 외면한 비인도적 진압명령 규탄한다

6월 6일(금) - 7일(토) 새벽 인권단체 인권침해감시활동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인권단체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 드립니다. 6월 6일(금) 저녁 부터 7일(토) 새벽 시민들과 대치한 경찰들의 대치과정에서 또다시 연행자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거나 노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30대 남성 시민을 연행하고 포위한 가운데서 방패로 찌고, 폭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여전히 경찰의 진압과정 폭력성이 노출되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경찰은 경찰차를 이용해 시내 주요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무단으로 사진채증하는 위법을 수차례 저질렀다.

4. 가장 심각한 것은, 전의경의 안전을 외면한 비인도적 진압명령이 속출한 것입니다. 전의경을 배치한 위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부상등의 위험을 들어, 인권침해 감시단을 비롯한 수 많은 시민들이 지휘관에게 전의경을 안전한 곳으로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이를 듣지 않아 결국 시민들과 전의경 부상자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의경의 안전을 외면하고, 전의경을 불모로한 비인도적 진압명령으로 간주됩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 7일 새벽 0시경, 시민들과 대치한 전의경들이 내리막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을 계속 지휘관에게 주의 주었으나 오히려 전의경들 뒤로 차량을 배치해, 전의경들이 시위하는 시민들과 차량사이에 낀 상태를 만듦. 이런 상황이 약 1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시위대와 전의경 모두 탈진하는 등의 부상자가 속출함.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나 지위에 대한 고지 없이 인권감시단의 경고를 듣지 않음.

사례2. 7일 새벽 1시경, 새문안교회에서 시민회관 방향에 세워둔 차량을 시위대가 밧줄로 당기는 동안, 흔들리는 차량안에 전의경들을 그대로 두었음. 위험하니 전의경들을 차량에서 하차시킬 것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 차량에 탑승한 전의경들의 안전을 방치했음.

사례3. 7일 새벽 5시경 새문안 교회 뒷마당에서 전의경들이 버스 뒤편으로 밀린 후 전경버스와 교회 옆 건물 사이에 전의경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옆 건물 지반이 낮아 전의경대열 바로 옆으로 1미터 정도의 턱이 있어서 밀릴 경우 떨어져 부상을 당할 위험이 컸음. 전의경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뒤로 약간 이동할 것을 지휘자에게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함. 결국 이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전의경들과 시민들이 1미터 턱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정확한 부상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음)

5. 위험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과 전의경의 안전, 모두를 외면한 경찰책임자들은 오늘 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 ◆ 聆恍兗꺼뻗璠T◆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 권센터,한국DPI,한국계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